

## ■ ( 농정 이슈 ) 2022.2.25. “한국농어민신문” 보도

### ○ 경기농기원, 작물 무기질비료 처방서 발급한다

- 공익직불제 시행 따른 기준설정
- 들깨·비름 등 소면적 5개 품목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무기질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농가를 위해 올해부터 들깨를 시작으로 비름, 들나물, 순무, 근대 등 작물 5종의 비료사용 처방기준을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 하도록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익 직불금을 받으려면 무기질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소면적 작물 들깨, 비름, 들나물, 순무, 근대에 대한 비료사용처방 기준설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로 지난해 들깨 재배 50농가의 비료 사용량과 토양 화학성을 조사해 비료사용 처방 기준을 마련 했다.

재배 농지마다 토양 성분이 다른 만큼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을 희망하는 곳은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5~10개 지점에서 작토심(0~15cm) 토양을 채취한 후 잘 혼합해 토양 시료(1~2kg)를 봉투에 담아 이름, 날짜, 지번, 작물명 기재 후 가까운 농업기술 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각 농업기술센터는 받은 재배 농가의 토양의 수소이온농도(pH), 유기물 함량, 인산 등 상태를 검정한 후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pH교정을 위한 석회질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비량 등의 내용을 담은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한다. 농가는 해당 처방서를 바탕으로 무기질비료를 정량 살포하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박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2025년까지 비름, 들나물, 순무, 근대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도 완료할 계획”이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려면 무기질 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비료를 적정량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화성=이장희 기자 >